

2025. 9. 3.(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

권명희

02-2133-2805

관광정책팀장

남규하

02-2133-2805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 5쪽

관련 누리집

korean.visitseoul.net

7월 서울 찾은 외국인관광객 136만 명... 케데헌 열풍 더해 역대 최대 기록

- 올해 1월~7월 서울행 외국인관광객 828만 명 돌파, 관광객 국적 中-日-臺-美 순
- 혼행·노노멀 관광 트렌드 반영... K콘텐츠 체험·스마트관광 인프라·사계절 축제 등 인기
- 서울, MZ 최애도시·혼자여행하기 좋은도시·아시아최고 레저목적지 1위 동시 획득
- 市,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혁신 서비스로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 조기 달성”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110만 명) 대비 23.1% 증가한 13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는 18.2% 많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관광객은 ▲중국(47만 명) ▲일본(24만 명) ▲대만(16만 명) ▲미국(10만 명)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총 8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19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며 동기간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혼행·노노멀 관광 트렌드 반영… K콘텐츠 체험·스마트관광 인프라·사계절 축제 등 인기>

- 서울시는 최근 늘고 있는 글로벌 MZ세대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체험콘텐츠와 안전하고 스마트한 디지털 중심 교통·숙박 인프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매력 등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 열풍이 더해져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다국적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실제 지난 1월~7월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19년 동기 대비 싱가포르 64.4%, 대만 44.0%, 미국 40.6%, 인도네시아 34.3% 순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서울시가 2023년 9월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발표후 전 세계적인 여행트렌드인 ‘혼행(혼자하는 여행)’과 현지인 일상을 참신하게 경험하는 ‘노-노멀(No-Normal)’ 등을 반영한 전략을 추진하며 탄탄한 관광객 유치 기반을 다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 ‘3·3·7·7 미래비전’는 ‘더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매력 도시’를 목표로 ▲외래관광객 3천만 명 ▲1인당 지출액 3백만 원 ▲체류일 수 7일 ▲재방문을 70%를 목표로 한다.

- 특히 ▲K-콘텐츠 체험관광 확대 ▲혼자서도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 ▲편시티(Fun City) 실현을 위한 사계절 축제 ▲도심 곳곳 지역관광 매력 발굴 등이 주효했다.
- (K-콘텐츠 체험관광) 최근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 영상 속 장소를 찾아 여행하는 일명 ‘성지순례’가 주목받으면서 지난해부터 서울시내 K-콘텐츠 촬영지에 다국적 AI안내관 ‘소울스팟(30개)’을 설치해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눈물의 여왕의 ‘우리옛돌박물관’, 재벌집막내아들 ‘덕수궁돌담길’, 빈센조 ‘DDP’가 대표적이며 8월부터는 서울컬처라운지(종로구 청계천로85 삼일빌딩 11층)에서 ‘케데헌’ 특별프로그램(갓키링만들기, 케데헌 안무배우기 등)도 운영 중이다.

- **(스마트 관광 인프라)** 올해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트립어드바이저)’로 꼽힌 서울은 24시간 안전한 대중교통 인프라는 물론 AI 다국어 안내서비스(플리토), 관광객 해외 특송 서비스(굿럭컴퍼니) 등 혁신적 관광서비스가 장점이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서울환대주간 등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 **(편시티)** 사계절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편시티 서울 조성을 위해 도심 곳곳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놀이터로 조성고 체험형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올해도 상반기에 개최한 서울스프링페스타, 쉬엄쉬엄 한강 3중 축제에 이어 가을에는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10.25.~26.), 서울미식주간(10.27.~11.2.), 겨울에는 서울윈터페스타(12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 **(현지인 일상체험)** 전통문화와 현대적 매력의 조화, 먹거리·즐길거리로 이름난 명소 등 ‘서울생활핫플 100선’으로 소개해 서울사람 같은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트래지 트래블 선정 ‘MZ세대에 가장 사랑받는 도시 4년 연속 1위’ ▲트립어드바이저가 뽑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최고의 아시아 레저 목적지부문 1위’를 동시에 차지하면서 글로벌 MZ를 비롯한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연합협회가 발표한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 1위’ 등 꾸준히 국제 위상을 기르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3천만 외래관광객 유치에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일 년 내내 즐거움이 넘치는 편시티 서울의 매력을 즐길 대표적인 명소와 축제, 관광 프로그램 등은 서울관광 공식 누리집인 ‘비짓 서울’(korean.visitseoul.net)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서울만의 맛과 멋, 흥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경험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조기달성해 서울을 최고의 관광도시로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컬처라운지 K-POP 체험